

불자 세상보기



정 천 구 서울디지털대학교 석좌교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가 요즘 이상하다. 특하면 의사당이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오고 처리할 의안이 산더미 같은데 5개월째 일을 안 한다.

어느 조사보고에 의하면 19대 의원 300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의원이 61명으로 20%에 달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국회는 대한민국 사회의 현 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는 기강이 무너져 거짓말과 탈법?범법이 횡행하고

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악당들이 입법?사법?행정부의 실세들과 손을 잡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령사건이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것인가? 법은 공평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 같이 적용되는 것을 생명으로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세기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생명과 진실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다.

반대로 집단주의는 인간이 물질적 존재이며 정신도 물질의 반영이라고 본다.

20세기에 집단주의의 광기(狂氣)는 나치즘과 공산주의 그리고 천황군국주의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런 집단주의의 재등장을 적극 막아야 할 입장이다. 이를 막을 유일한 전력은 생과 진실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현대적 버전인 자유민주주의 밖에 없다.

로 가고 있다. 국회는 모든 문제를 사리와 분별 대신에 집단의 힘, 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집단주의의 속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할까? 문제가 심각함으로 국회를 국가개조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럼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할까? 문제가 심각함으로 국회를 국가개조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국대 108주년 불사에 거는 기대

동국대가 건학 108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동국대는 10월 8일 '건학 108주년 기념관'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10월 25일에는 교내 운동장에서 불사 봉행법회를 열고 대대적인 모연에 나선다. 불사 증명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할 예정이다.

또한 동국대는 스타 동문들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에도 나섰다.

동국대가 건립을 추진하는 '건학108주년 기념관'은 지하철 동대입구역부터 혜화문 부지에 거쳐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27,088㎡ 규모로 건립된다.

건학108주년 기념관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불교와 전통문화 콘텐츠를 융화시킨

불교전통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산발적으로 자리한 박물관, 불교학술원 등을 한군데로 모아 한국불교 연구와 불교 인재 교육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불교계에는 출세가 인재에 목달라 있다. 그래서 늘상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정 진제 스님이 '불광동대(佛光東大) 보조발원(普照發願)'이라는 친필 휘호와 함께 금일봉을 전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寺址에 가톨릭 성역화라니...

한국사회의 종교 중 가장 대중적인 호응을 받는 종교는 단연 가톨릭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종교인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까지 있었으니 순풍에 돛을 단 격이다.

불교도 개신교와는 다르게 가톨릭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불자들 역시 가톨릭에 대한 거부 반응이 별로 많지 않다.

가장 경계할 부분은 가톨릭이 자신들의 역사를 일반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9월 18일 열린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이창한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교황 방한의 이면에는 가톨릭 순교사를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톨릭은 자신들의 순교 성지로 서소문 공원을 선택하고 성역화 작업을 추진

하고 있다. 서소문에서는 단순히 가톨릭 순교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처형을 당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여주 주어사지도 마찬가지다. 이를 원형 복원하기 위해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는 기도회를 갖고 있고 연등을 설치했다.

기본적으로 주어사지는 엄연한 사찰터이다. 종교화합의 성지로 만들고 싶다면 가톨릭 강학터 이전에 사찰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불교계도 이 같은 가톨릭 성역화 작업과 순교 역사의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 가톨릭의 성역이 되어버린 사찰은 천진암만으로도 족하다.

발언대

중앙총회의원의 자세

오는 10월 16일 조계종 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다.

<편집자주>

사명의식, 총회의원의 기본 자격



법승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본디 승가는 부처님 재세 시부터 갈마제도에 의해 대중들이 직접 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중앙총회가 제대로 기능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불교의 미래가 판가름된다 할 수 있다.

님의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종헌개정안과 총무원장 선거 관련 안건이 무책임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중앙총회는 대의기구로서 조계종과 한국불교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반면, 법이 일부 미비해도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함양돼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

제16대 중앙총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스님들은 책임감과 역사적 소명의식, 확고한 연구자세를 가져야 하고, 선거권을 가진 스님들은 매의 눈으로 살펴야 신중وان 선택을 하여야 한다.

종단 대표란 책무, 무겁게 여기길



김중규 교단자정센터 센터장

16대 총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향후 총회의원으로 활동하게 스님들이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총회의원들의 종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

재가자들 중에 적극적으로 완전직선제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진보적인 입장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15대 말미에 있었던 임시총회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인한 문제도 드러났다.

국회나 시의회 등 입법기관에서는 법령을 만들 때 입법권을 가진 이들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법령 등에 대해 기명투표를 진행한다.

종단의 미래와 화합에 대해 자신들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종교지도자로서 도박, 음주, 여러 불법행위로 문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제촌 3천 4십 1번 을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